# 도두항 유람선 사업자- 어민 갈등 고조

## 29일 유람선 입항 앞두고 선주와 마찰 예고
## 낚시어선 "행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 비판

속보=제주시 도두항에 추진되고 있는 유람선 사업과 관련,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본보 7월 31일자 4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다.

유람선 사업자 측은 제주시 도두항에 29일 유람선 입항을 목표로 유람선 접안 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항되는 유람선 '해미르호(480t급·승객정원 399명)'는 도두항~사라봉 왕복 코스로 운항될 계획이다.

별다른 조치 없이 예정대로 유람선 입항 계획이 알려지자 도두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주들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가 도두항 부지 주차장에 추진한 비관리처 어항 개발사업에 유람선 사업자 측이 민간개발 사업자로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어민들이 민원을 제기,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낚시어선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새로 들어오는 유람선은 기존에 운영했던 유람선보다 크게 건조돼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으로는 정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정작 행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류장 임대 승인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법적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람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유람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두항 또는 인근 포구 증설 등의 문제를 검토했지만 국가어항이라 현실적으로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도두항을 이용하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 옛 동거녀 협박 60대 징역형

한때 동거했던 여성을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B(61)씨에게 18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김현석기자

27일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이 생활임금 시급 1만1000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생활임금 놓고 불협화음 조짐

## 도, 어제 1차 회의 거쳐 2020년 9980원 제시
## 노조 1만1000원 요구… 금액차 커 진통 예상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이 생각하는 시급 수준 차이가 커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17년 시급 8420원, 지난해 8900원, 올해 9700원을 적용했다. 인상분은 각각 480원(5.7%)과 800원(9.0%)이 오른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소속 근로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보다 280원(2.8%) 오른 9980원이 제시됐다. 예년 인상폭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같은 날 오전 제주도청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시급 1만1000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700원은 월 202만원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 276만원의 73%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 월 23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20년 시급 기준이 전년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된 데에는 '인상 부작용' 논란과 '속도조절'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됐다.

제주도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중국 한한령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관광업계가 위축됨에 따라 인상률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시급 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9월 10일 2차 회의에서는 2~3개 시급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 성희롱 초등학교장 면직처리 논란

## 행정직원에 문자메시지
## 직위해제되자 곧 사직
## 교육청 "사안 경미" 수리

학교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초등학교 교장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면직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27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 행정실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은 A교장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B씨에게 지난해 11월 '함께 유럽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초에는 새벽시간에 '너는 왜 새해인사를 안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지난 7월 인사 고충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월 2일 성인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8월 5일 A교장을 직위해제했으며 A교장은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도교육청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8월 23일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으며, 교육청은 중징계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종필 감사관은 "성희롱고충심의위에서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거나 노골적인 표현을 한 것은 아니어서 중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직위해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크레인 이용 고공시위 112신고 564건

## 경찰, 시위자 입건 수사

지난 19일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로타리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차량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건설인노조 제주지부 소속 A(50)씨를 재물손괴, 업무 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건설인노조는 지난 12일부터 방송차량 11대를 이용해 제주도청 등 6개소에서 방송 송출방식의 집회를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제주시 신광로타리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차량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 현장에서 발생한 25t 유압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전국건설인노조 시위와 관련 56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투쟁가요 등을 방송하면서 소음 기준치도 13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오전 8시28분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측정 장소 기준) 75데시벨(dB)을 훨씬 뛰어넘는 97.6데시벨(dB)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유지명령 6회와 중지명령 2회를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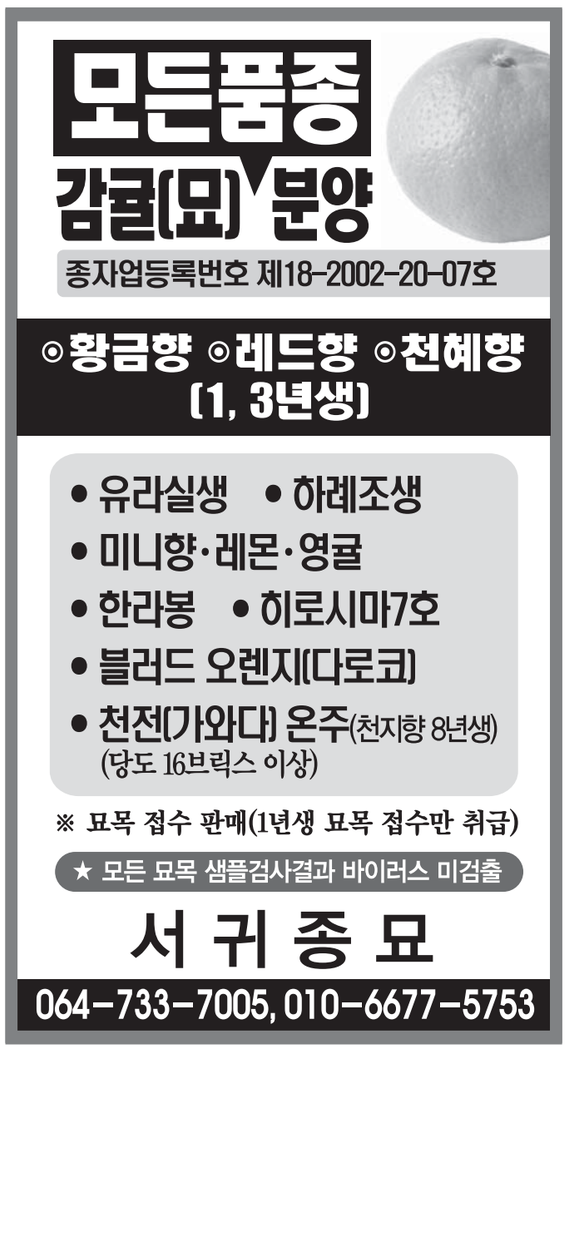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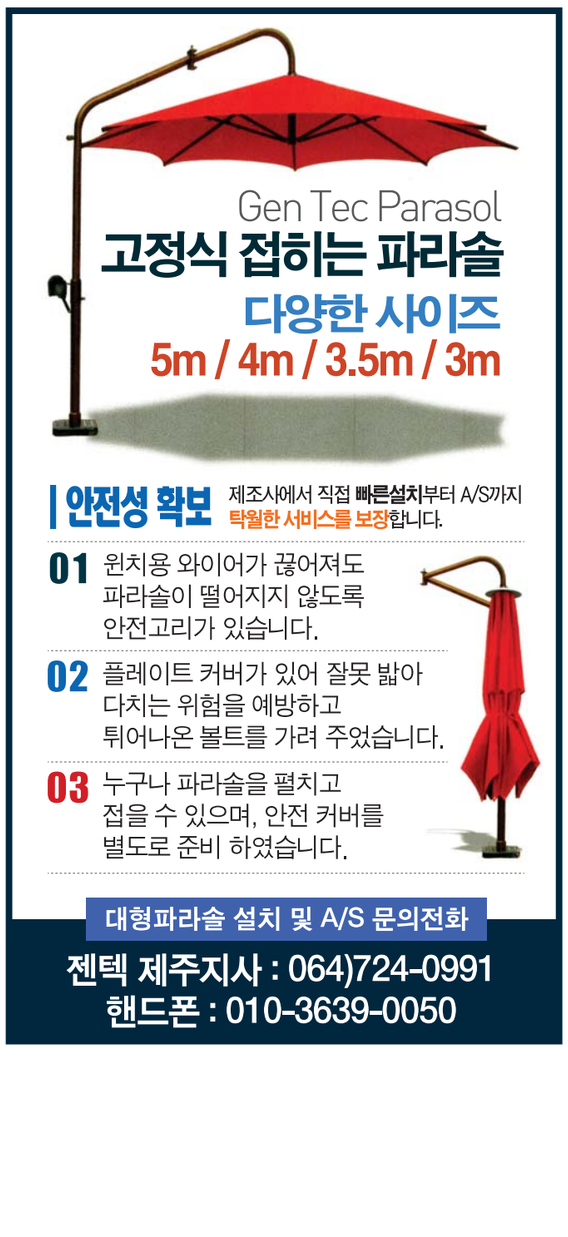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고공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위자와 인근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 30대 日영사관에 돌 던져

술에 취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관저 대문을 향해 돌을 던지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